우암학원 창학67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72호 1판 (음력 3월 14일)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문재인·안철수 양강구도…요동치는 대선 민심

'선택 2017' 대선 D-29

한신협, 광주·대전·부산·대구 민심 르포

광주, 초유의 野野격돌 "누가 되든 정권교체"…민심 양분
대전, 사라진 충청대망론에 아쉬움…"끝까지 지켜봐야"
부산, 문·안 후보의 고향…"찍고싶은 사람 아직 없어요"
대구, 反文정서에 사표 방지 심리…중도냐 보수냐 고민

'5·9 장미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호남과 영남, 충청 등 권역별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2·3·4·5면〉

그동안 보수 지지층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보수정당의 분열에 따라 보수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고 야권 후보로의 쏠림 현상이 커지고 있어서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대표 지방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7~9일 권역별로 대선 민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야권 후보로 '양강 구도'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지역별로 크게 나뉘어 있고, 선거 막판까지 관망하겠다는 민심도 늘어 선거 판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야권의 텃밭인 호남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양강 체제'를 만들면서 '꽃놀이패'를 쥐게 됐다. 무엇보다 정권교체가 최우선인 호남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 초반의 경우 '될 사람을 밀어주자'면서 대세론을 앞세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했지만, 최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에 두 후보에 대한 고른 지지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거 야권 후보 한 명이 결정되면 본선에서 '올인'했던 호남 민심이 이번 대선에선 문·안 두 후보 중 누가 되든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두 후보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과 애정을 확인한 뒤 선택하겠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충청권 민심은 유력 주자로 꼽혔던 지역 출신의 안희정 충남지사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잇따라 본선 진출에 실패함에 따라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이번 대선에서 또 한번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본선 진출을 기대했던 안 지사의 충청지역 지지층 일부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로 이동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충청권에서도 대세론을 유지하고 있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변동이 주목되고 있다.

보수성향이 강했던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보수 정당의 분열과 보수 후보의 약세에 따라 보수층 표심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 일부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 진보성향이 옅은 안철수 후보로 시선을 향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김부겸, 홍의락 의원이 당선되는 등 TK민심이 크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세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늘 보수성향 후보를 선택해왔던 TK민심이 30년 만에 다소 불편한 선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선 구도에서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고향인 부산·경남(PK)민심은 '문재인 대세론'에 여전히 무게 중심이 쏠려있지만, 안 후보의 무서운 상승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20~40대 중반에서는 문재인 후보에, 50대 이상에서는 안 후보에 지지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K 보수층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하면 '사표'(死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에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도 엿보이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19대 대선 주요일정

날짜	일정
4.11~15	- 선거인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군인 등 선고공보 발송신청
4.15~16	후보자 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4.17	공식 선거운동 개시
~4.19	선거벽보 제출
~4.22	- 선거벽보 첩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4.25	책자형 선고공보 발송
4.25~30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4.26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4.27	선거인명부 확정
~4.29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거소투표용지 발송 - 투표 안내문 발송
5.4~5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5.4	개표소 공고
5.9	19대 대통령선거 - 투표(오전 6시~오후 8시) -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빠져나와 육상에 완전히 올라온 9일 목포신항에서 세월호가 모듈 트랜스포터 600축에 실린 채 부두에 거치돼 있다. /연합뉴스

1090일만에…세월호 드디어 뭍으로

미수습자 9명 수색·사고 원인 규명 조사도 속도 낼 듯

세월호가 9일 침몰 1090일만에 마침내 뭍으로 올라왔다. 육상 거치가 성공하면서 미수습자 9명의 수색과 세월호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6면〉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전 특수수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 600대를 세월호가 실려 있는 반잠수식 선박에 이동시켜 1만7000t에 이르는 세월호 선체를 들었다. 뭍으로 올라온 것은 만조 때인 오후 1시부터였다.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때 부두의 높이와 반잠수식 선박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작업은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됐다. 선체가 반잠수식 선박에서 벗어나는 데 4시간30분이 소요됐다. 그 사이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면 반잠수식 선박의 평형수를 빼내는 방식으로 부두와 선박 간 균형을 유지했다.

모듈 트랜스포터가 선체를 싣고 육상으로 완전히 나온 후 세월호는 부두 한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작업이 진행됐다. 반잠수식 선박의 갑판 위에 놓여 있던 세월호 받침대도 목포 신항 부두 위로 올라왔다. 선체를 이 받침대 위에 올려놔야 육상 거치 작업이 끝난다.

육상으로 이송된 세월호에 대한 방역, 소독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미수습자 수색이 시작된다. 세월호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인양한 궁극적인 목적은 미수습자를 찾고, 침몰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다.

진도 세월호 침몰해역에서는 수중 수색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날 낮 12시30분께 잠수사 2명이 투입돼 침몰 장소 주변에 설치된 유실방지 사각 펜스 구역에서 수중수색을 시작했다. 2014년 11월11일 정부가 미수습자 9명을 남기고 수중 수색 작업 중단한 지 880일만의 재개다. 수중 수색은 앞으로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은 첫 수중수색인 점을 감안해 수색작업 여건 등을 중점 점검했지만 유류품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색은 강한 조류와 바람, 불량한 시야 탓에 1시간35분만에 종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도 인구 190만 붕괴

3월말 기준 189만9441명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가 사상 처음으로 180만명대로 추락했다. 고령화와 저출산, 조선업 등 기반산업의 침체에 따른 이탈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가 이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와 전남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9만9441명(84만4186가구)으로, 전달 190만797명에 비해 1356명이 감소했다. 지난 2010년 6월(190만9765명) 190만명대로 추락한 이후 6년 9개월만으로 180만명대는 행자부의 인구통계 집계가 이뤄진 이후 최초다. 200만명 붕괴 이후 13년만이다.

전남 인구는 1961년 357만320명에서 1966년 405만4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어들었으며 IMF 체제 여파로 도심에서 농촌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1998년 7671명이 한 차례 늘어난 뒤 다시 추락, 지난 2004년말 200만명이 붕괴했다.

전국 최초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사망자보다 출생자가 적은 것이 인구 감소의 구조적 문제로 분석됐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65 since 1952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